1. 종교다원주의 배격
1. 동성애 반대
1. 차별금지법 반대
1. 자유민주주의 수호

제1192호
2월 26일
2022년
토요일

牧羊新聞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예금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농협 301-0153-7296-01 ■ 문의 02)2675-5181~3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 서울 다-07857 주간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한국교회의 건실한 발전 도모

한국기독교한림원 창립, 복음주의 신앙 한국 석학들의 모임

이사장 조용목 목사, 원장 정상운 목사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한국 석학들의 모임인 한국기독교한림원(韓國基督敎翰林院)이 지난 2월 8일(화) 서초구 희성빌딩 아트홀에서 발기인 창립모임을 가지고 새로 발족했다.

발기창립 모임은 예배(설교:임성택 목사, 전 KC대 총장) 후 창립회의를 갖고 창립 취지문과 정관을 심의, 통과시켰다.

이사장에 조용목 목사(시진, 은혜와진리교회)를 만장일치로 추대하고, 정상운 박사(시진, 전 성결대 총장)를 원장으로 선임했다.

기독교한림원은 복음주의 신학과 신앙에 기초하여 한국교회의 건실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 시대 기독교 가치의 실현을 통해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를 제도하기 위하여 각 분야 석학들을 추대하여 연구, 교육 및 출판 활동을 전개하는 일을 한다.

창립 발기인은 정상운 박사를 비롯하여 길원평 박사(한동대 석좌교수,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대표), 김선배 박사(한국침례신학대 총장, 전 한국신학대학원협의회 회장), 박응규 박사(KC신대 교수, 개혁신학회 회장), 서정숙 박사(강릉영동대 명예교수, 한국신학회 이사), 안명준 박사(평택대 명예교수, 전 한국장로교신학회 회장), 이광희 박사(평택대 교수, 전 개혁신학회 회장), 이동주 박사(전 아신대 교수, 바이하우스신학회 회장), 이상규 박사(백석대 석좌교수, 전 장로교신학회 회장), 임성택 박사(전 KC대 총장, 미래세대 청년연합선교회 회장)이다.


이사장
조용목 목사


원장
정상운 목사



한국기독교한림원은 오는 4월 9일(토) 오후 3시 은혜와진리교회 카이노스성전에서 창립감사예배와 함께 '21세기 한국교회, 도전과 극복'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경찰복음화와 국민안전위해 기도

제49차 교회와경찰중앙협의회 정총 신임 대표회장에 배진기 목사 선출


배진기 목사
교회와경찰중앙협의회 대표회장
안디옥교회 담임

제49차 교회와경찰중앙협의회 정기총회 및 '나라의 평화와 국민안전을 위한 기도회'가 지난 2월 22일(화) 오전 서울 HW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되어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힘든 상황을 잘 이끌어갈 49대 대표회장에 배진기 목사(포항안디옥교회)가 선출되었다.



정기총회에서는 대표회장 직무대행 양정섭 목사의 사회로 신현수 목사의 기도, 서기 김배윤 목사의 회원점명 후 감사·결산·사업 보고가 이뤄졌으며, 임원선거에서는 49대 대표회장에 배진기 목사를 선임했다. 이어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안건토의, 회의록채택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어 열린 기도회는 사무총장 박노아 목사 사회로 내빈소개, 대통령과 나라의 평화를 위하여(경무실장 양재철 목사)', '경찰청장과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상임공동회장 양정섭 목사)', '경찰선교와 교경 발전을 위하여(임동희장 신철모 목사)'가 각각 주제별 기도를 인도했다.

경찰청선교회 최성규 회장의 성경봉독, 직전 대표회장 설동욱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설 목사는 왕상 3:3-10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한 삶 원하지만, 참된 행복은 이 세상 물질이나 명예나 인기에서 오지는 않는다"며 "참된 행복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질 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설교 후 차안총수인 김정룡 경찰청장의 감사장 전달과 인사말이 이어졌다. 김정룡 경찰청장은 "협의회에서 경찰 업무를 지원해 주시고, 특히 많은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경찰 유가족 분들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국가의 안전과 질서 확보를 최대 목표로 삼고 기초지안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49대 대표회장에 선임된 배진기 목사는 "1만 경찰조직과 한국교회를 아우르는 막중한 사명을 맡겨 주신 하나님과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주어진 임기 동안 경찰가족의 영혼구원과 교경중앙협의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회장 고경환 목사의 축사, 33대 대표회장 이재환 목사의 격려사 등이 있었으며 박노아 목사의 경과보고 및 광고, 41대 대표회장 정진성 목사의 축도로 '나라의 평화와 국민안전을 위한 기도회'가 마무리 되었다.



꽃 같은 조장 말은 시대

'"예" 만 있고 "아니오"가 없다'


조용목 목사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고후 1:19,20)

우리는 한평생 살아가면서 "예"와 "아니오"를 무수히 말합니다. 그 말한 결과가 매우 사소하여 별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지만 대단히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분의 "예" 또는 "아니오"라는 의사표시가 나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의 운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요구에 대하여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었습니다.

범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죄 없는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장차 구세주가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피 흘려 죽으실 것이 계시되었습니다. 사람의 죄는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 대속해야 하고 그 사람은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결국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이 세상에 오셔야 합니다. 천지만물을 지으신 이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시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사시면서 사람들로부터 온갖 멸시와 박대를 다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에 엎드려 피땀을 흘리시며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시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시니라"(눅 22:42).

둘째,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되고 '아니라' 하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언약이며 계약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상황은 이 계약에 의하여 주어지는 보장입니다. 그 언약들이 과연 유효한 것이며 우리 각 사람에게 반드시 적용되는 것이나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복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약속들 중에 일부를 열거해 보겠습니다. 죄 사함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예'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들에 대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아니라" 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셋째,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어야 합니다.

주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철저하게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 홍수 심판을 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방주의 규모가 엄청나므로 비용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12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인내해야 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부정적 충고와 비웃음을 들리지고 견뎌야 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습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본보기 중에 이브라함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백 세에 낳은 외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말없이 순종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는 성도는 성경대로 살아갑니다. 성경에는 많은 약속과 함께 많은 명령이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들은 우리를 억압하거나 얽어매는 줄이 아니라, 순종하면 행복과 유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와 '아멘'만 있고 "아니오"가 없는 순종의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대하여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는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더 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더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은혜와진리교회)

문재인 대통령·이재명 후보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발언 강력 규탄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은 '복음법률가회',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복음법률가회', '복음의료보건인협회'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7대 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대해 "의지를 가지고 남은 임기 동안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재명 후보도 대선 후보 2차 토론회에서 "논란이 있더라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발언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직 인권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최악의 인권탄압국인 북한의 인권탄압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온 반면에, 대다수 국민을 역차별하고 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임기 말인데도 불구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인권 의식은 '전략적 인권관'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법 수용소에서 고문과 굶주림 속에 죽어가고 있는 북한 주민의 인권보다, 여성이라고 우기는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통령의 인권관은 심각하게 편향적이고 왜곡되어 있다고 본다.

평등법이 제정된 영국에서는 재규어 랜드로버사의 한 남성 엔지니어가 자신이 젠더 플루이드(유동적 젠더)라고 주장하면서 성전환 수술도 안 하고서 회사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도록 해 달라는 부당한 요구를 하였는데, 이를 들어주지 않은 회사에 18만 파운드(약 3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처럼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여성들의 인권이 유린당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인권변호사로서의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공정을 기치로 내건 이재명 후보도 차별금지법의 불공정성을 제대로 알고서 찬성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소속 수영 선수인 리아 토마스는 2019년 11월까지 남성 수영 경기에 출전했었는데, 2021년에는 전미대학스포츠협회(NCAA) 여성 수영 경기에 출전해서 200m 자유형과 500m 자유형 종목에서 신기록을 세웠다. 트랜스젠더 선수가 여성 수영 경기에서 9개나 신기록을 내버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2021년 9월 갤럽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응답자의 62%가 성전환 수술 후 바뀐 성별로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재명 후보에게, 여장아닌 주장하는 남성이 여자 스포츠경기에 나가서 금메달을 싹쓸이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북미와 유럽 국가들에서는 다수의 국민이 역차별당하며,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인권 선진국이 되고, 공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영원히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주는 것이다. 대다수 국민의 정서를 전하고 더하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2년 2월 15일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복음법률가회복음의료보건인협회 일동

한교연 11-1 실행위원회 및 임원회

"프로테스탄트 정신으로 교회의 생명력 발휘하자"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은 지난 2월 10일(목) 오전 11시 서울 은평제일교회(심하보 목사 시무)에서 제11-1차 실행위원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정관개정안과 운영세칙 개정안,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심의 확정했다.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의 시회로 열린 이날 실행위원회와 임시총회에서 심의 통과한 정관개정안은 각종 회의 소집 공문을 우편 또는 팩스, SNS로 보낼 수 있도록 한 것과 매년 12월 첫 주로 정해진 정기총회를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시 임시 장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원회에 참석하지 못할 시 교단 대표의 위임을 받은 교단 및 단체 내의 다른 임원의 위임 출석도 가능하도록 한 것들이다.

이날 개정된 운영세칙은 회원 분담금의 경우 일률적으로 교회당 1만원을 납부하던 것에서 교단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교단이 동등하게 25만원으로 정하고 총대와 실행위원도 똑같이 파송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이는 대교단이 분담금을 많이 내는 만큼 총대와 실행위원 수도 많이 배정받는 것이 교회 연합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모든 교단과 단체가 권리와 의무를 동등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은 대표회장과 상임회장의 경우 연임할 때는 등록서류 및 후보 공고 등의 선거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이날 실행위원회와 임시총회에 앞서 열린 개회예배는 상임회장 김학범 목사의 사회로 김병근 목사(꿈동회장)가 대표 기도하고 강명이 목사(한인)사)가 성경(마 16:16~19)을 봉독했으며, 이어 최철호 목사(다음세대교육위원장)가 '나뉨의 안정과 대선을 위해', 김종선 목사(공동회장)가 '코로나19 종식과 차별금지법 철회를 위해', 신동호 목사(공동회장)가 '회원 교단과 한교연 결속을 위해' 각각 특별기도했다.

교갱협 제6대 대표회장 김성원 목사 취임

맡겨주신 사명감당을 위해 회원들의 기도 당부

교회갱신협의회(이사장 김태일 목사, 대표회장 김성원 목사, 이하 교갱협)가 지난 2월 10일(목) 광주중흥교회(김성원 목사)에서 대표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한 가운데 김성원 목사가 제6대 대표회장에 취임했다.

지난해 교갱협 총회에서 김성원 목사가 대표회장에 선출했으나,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이취임식을 연기한 바 있다.

그러다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철저한 방역지침 아래 이취임식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날 이취임식에서는 이사장 김태일 목사가 6대 대표회장으로 수고한 강찬곤 목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했고, 2대 대표회장 김경원 목사가 김성원 목사에게 6대 대표회장 위촉패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이경영 목사(부본위원)와 이규왕 목사(고문), 정필도 목사(고문, 지형은 목사(한목협 대표회장), 황영준 목사(고문), 이근수 목사(고문)가 축사와 격려사를 전했다.



김성원 대표회장은 취임사에서 "리더십도, 지식도, 지혜도, 언변도,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능력도 부족하다. 그래서 이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직 엄청난 분량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며 "부족한 종이 이 큰 직무를 감당해나가며 실수하지 않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날 인사말을 전한 이사장 김태일 목사는 "가장 적합한 분이 대표회장이 된 것 같아 기대가 된다. 코로나를 겪으니 하나님의 긍휼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 하나님께서 교갱협 동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풍성하신 긍휼하심으로 교갱협과 김성원 목사님에게 함께하실 줄 믿는다"고 인사했다.

(사)나눔과기쁨, 이사장에 나영수 목사 재선임



(사)나눔과기쁨은 지난 2월 10일(목) 오후 2시 광명시 평생학습관 강당에서 2022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사장에 현 나영수 목사를 재선임했다. 이번 정기총회는 회원 6750명을 대표한 전국의 총대 54명 중 50명이 참석했으며, 역대 가장 높은 참여율을 나타냈다. 특히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18년 만에 총대들이 직접 투표해 신임 이사장을 결정했다.

투표에서 재선임된 나영수 이사장은 주요 공약의 실천을 약속하며 "후원금 개발과 재정 집행의 원칙을 세워 연합회와 지부의 참여를 정착시키고, 목민아카데미와 굿즈뱅크를 통해 지역지부 확산과 체질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나영수 이사장은 본부 사무총장 인선과 운영위원회 재구성, 총대 회원 정비와 인터넷신문 오픈 등의 작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지역지부 강화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는 나눔과기쁨의 재도약을 위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 회원은 "본부의 열악한 경영 상태를 감안해, 스스로 무임봉사를 하겠다는 나영수 이사장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지역지부 활성화를 위해 후원금 배분비율을 연말 이전에 조정해주는 공약도 공감이 되는 정책이었다"고 전했다.

아프리카 감비아에 성경 보낸다

대한성서공회, 점촌제일교회 후원으로

대한성서공회 성서사업센터는 최근 점촌제일교회(예성인 목사)의 후원으로 감비아에 〈졸라어 성경〉을 보내는 기증식을 가졌다.

이번 기증식에서 계성인 목사는 "오늘 이 자리에 졸라어 신·구약 모두가 함께 완역되어 출판된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 생각되고 참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을 받은 감비아가 아프리카 내부에서부터 복음의 물결을 일으키기를 소망합니다"라고 말했다.

감비아는 2500여만 인구 중 90%가량이 이슬람교를 믿는 기독교 불모지이다. 국가적으로 이슬람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겪고 있는 문맹과 빈곤의 문제는 복음을 전하기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그 중에도 특별히 소수 부족인 졸라 부족은 언어는 있지만 사용하는 문자가 없어 문맹률이 75%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점촌제일교회의 파송으로 사역하는 심미란 선교사를 통해 감비아 인구의 약 18만 명에 해당하는 소수 부족이 사용하는 졸라어로 성경이 번역될 수 있었다.

번역된 졸라어 성경과 각종 자료들은 졸라 부족이 글을 깨우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폭의 통로가 되고 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다.

이번에 후원되는 〈졸라어 성경〉을 통해 소수 부족으로 살아가는 졸라 부족 사람들이 글을 깨치고 예수님을 알게 됨은 물론 이슬람 국가인 감비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는 부족으로 세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감성커피 '메리 레드 크리스마스' 캠페인 마치며

구세군과 함께 '2021 겨울 콜라보 음료 기부금 전달식' 가져

구세군한국군국사령관 장만희, 이하 구세군)이 지난 겨울 진행했던 '메리 레드 크리스마스' 캠페인을 마무리하며 지난 2월 9일(수) 감성커피와 함께 '2021 겨울 콜라보 음료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커피 프랜차이즈 '감성커피'는 지난해 12월 구세군자선냄비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착한 자선메뉴 2종을 출시하고,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위기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그룹홈에 기부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식을 가진 바 있다.

감성커피가 구세군자선냄비와 콜라보레이션으로 선보인 자선메뉴는 '러브 허니자몽 블랙티'와 '헤븐 캐모마일 리프레쉬'로 기부금은 해당메뉴가 판매될 때마다 일정금액이 적립되는 형식으로 조성됐다.

이와에도 컴홈터의 QR코드를 통한 나눔독려와 홈페이지와 SNS 방문을 통한 '희망한마디 이벤트' 개최 등 구세군자선냄비와 감성커피의 콜라보는 겨울 내내 다채롭게 펼쳐졌다. 이처럼 의미 있는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조성된 기부금은 가정형 소규모 돌봄시설 그룹홈의 이동과 청소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구세군자선냄비는 앞으로도 나눔이 일상이 되는 기부문화 조성에 앞장서고자 연중 다양한 콜라보레이션 기획, 겨울 뿐만 아니라 봄과 여름, 가을에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NGO가 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예성, 성결미래목회포럼 개최

"구원의 복음 기치들고 세상 향한다"

예수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이상문 목사) 성결미래목회연구소는 지난 2월 10일(목) 오전에 성결대 아펜국제회의실에서 2022년 성결미래목회포럼을 개최했다. '한국성결교회의 시작을 파헤치다 자생인가? 파생인가?'라는 주제로 총회 유튜브 계정인 성결TV를 통해 생중계했다. 특히, 이번 포럼은 한국성결교회 시작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고 예성 교단에 소속된 모든 목회자들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사중복음의 기치를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택 박사(신정교회)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 발표한 패널은 다음과 같다. △노윤식 박사(주님임앙에제일교회, 전 성결대 교수)=선교적 관점에서 본 한국성결교회 기원에 대한 연구 △임흥근 목사(주의양교회, 성결교회 역사자료 수집가)=성결교단의 뿌리와 정체성 확립을 통한 목회적 지금심 고취 △박명수 박사(서울신대 명예교수,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장)=성결교회의 정체성에 관한 논의.

한편, 총회장 이상문 목사가 개식사를 맡았으며, 성결대 김상식 총장의 기도와 감사의 말, 성결신학원 이사장 박광일 목사와 직전총회장 김유석 목사의 인사말이 있었고, 포럼 후에는 부총회장 신현파 목사가 마침 기도를 함으로 순서를 마쳤다. 성결미래목회연구소는 이행화 목사(원당교회)를 소장으로 권순달(밝은빛교회), 김영택(신정교회), 서계원(중동교회), 석진성(부평창신교회), 송민우(목일교회), 신상관(터도림교회), 전승학(하늘비뭍교회) 목사가 연구원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교단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갖고 있다.



'퐁당' 론칭 1주년 스마트TV와 웹버전 출시

1만9000여 개의 누적 콘텐츠, 이제 더 큰 화면으로 본다

CGNTV가 만든 국내 최초 기독 OTT 플랫폼 '퐁당'이 2월 15일 론칭 1주년을 맞아 스마트TV와 웹버전을 출시한다. 1년 만에 가입자 80만 명을 돌파한 '퐁당'은 이제 좀 더 큰 화면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균형 잡힌 신앙 양육을 돕는 '퐁당'은, 오리지널 양육 콘텐츠를 비롯해 영화, 다큐, 예배, 찬양 등 1만9000여 개의 누적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일 60개의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있다.

'퐁당'은 현재 230개 네트워크 교회와 함께하고 있다. 이들은 '퐁당' 내 클래스 기능을 활용해 기존 오프라인으로 하던 교회 양육과 병행하거나 온라인 양육으로 대체하는 등 각 공동체만의 양육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클래스 기능을 사용하면 관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어 수강 상도들의 진도율이나 출석체크를 할 수 있다. 이번 상황에서 스마트TV와 웹 버전 출시로 인한 대화면 시청 환경 조성은 교회에서의 '퐁당' 활용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YWCA 정책의제에 대한 대선 후보자 답변 공개

탈핵 · 기후, 평화 · 통일, 성 평등, 청년 4개 부문

한국YWCA연합회(회장 윤영희)는 지난 2월 8일(화)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제20대 대선 한국YWCA 정책의제〉에 대해 주요 정당 후보자들에게 요청한 공개질의서 답변을 공개했다.

한국YWCA 정책의제는 탈핵기후, 평화통일, 성평등, 청년 총 4개 부문에서 13개 영역 총 75개 과제로 구성되어, 지난해 12월 초 주요 4개 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후보 캠프에 공개질의서 형태로 전달되었다.

이 중 심상정,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차례로 답변서를 제출했으며, 안철수 후보는 수 차례 요청 끝에 질의서에 회신하지 않기로 했다는 답변을 보내오로 무응답 처리되었다.

52개 지역 회원YWCA에 의해 결의된 정책의제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찬반여부를 표로 정리했으며, 관련 의견은 가상대화방 형식으로 유튜브에 게재했다.

한국YWCA는 각 후보자들이 밝힌 찬반여부와 관련 의견을 52개 지역 10만 회원들과 공유하고 유권자 운동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오늘 발표한 후보들의 답변 및 평가 내용은 한국YWCA 홈페이지(https://ywca.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장로장립 및 안수집사·권사·명예권사 임직예배

경남지방회 엘벧엘교회



경남지방회(회장 권우석 목사) 엘벧엘교회(담임 서해범 목사)는 지난 2월 6일(주일) 오후 5시 동교회에서 장로장립 및 안수집사, 권사, 명예권사 임직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명자 되어 순종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임직예배는 지방회 총무 유영주 목사(엘벧엘교회)의 사회로 허영수 목사(행복교회)의 기도, 서기 조명식 목사(세정유제일교회)의 성경봉독, 서해범 목사(엘벧엘교회 담임)의 엡 2:4-6을 본문으로 한 '주와 연합을 실제화 하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2부 장로장립 순서는 지방회장 권우석 목사(정원순복음교회)의 서약과 안수위원들의 안수, 악수례에 이어 권우석 목사가 공포 후 장로장립패를 증정했다.

3부 집사안수, 권사, 명예권사 임직식은 유영주 목사의 서약 후 안수위원들의 안수와 악수례가 있고 유영주 목사의 공포와 임직패 수여로 마무리 했다.

4부 권면과 축하 시간을 통해 지방회 부회장 황용연 목사(은혜와평강교회)의 권면, 이재용 목사(순복음은혜로교회)의 축사, 중고등부와 청년부의 축가, 차상찬 장로의 답가를 들은 후 증경지방회장 윤성수 목사(진주은평교회)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무리 했다.

이날 임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차상찬 장로 최성룡 안수집사, 최인숙, 김은구 권사. 송복지, 도희선, 김정희 명예권사.

한 권의 책으로 장병들에게 장래의 꿈을!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 전개

군선교위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에서는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위해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TV,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정서가 메말라가고 게임중독 등으로 이기적 삶의 형태로 변해가는 신세대 장병들에게 이러한 기기들을 멀리하고 책과 함께 함으로 정서함양과 협동심, 사회성, 희생정신과 봉사와 희생정신을 일깨우는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되어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내용의 책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장병들에게 용안과 위로, 안식과 믿음을 심어 줄 수 있는 종교서적-설교집, 신앙장치, 성교 테이프, 찬양 테이프, CD 책 등-군생활 속에서 장래의 꿈을 심어 줄 수 있는 책과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서적,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의 요리서적, 경제 및 건강관련 서적, 소설로 된 역사책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새 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심코 지나쳤던 책들이 있으시면 장병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책겨 보내주시면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끝으로 사랑으로 보내주신 한 권의 책이 이기적이었던 신세대장병들을 동료를 내 몸처럼 아끼고 배려할 줄 아는 선한 이웃으로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군선교위원회

군선교위원장 박순용 목사 (010-9720-1603)

한국교계, 코비드19로 인한 피해 백서 만든다

예자연, 한국교회언론회와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진홍 목사, 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와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주관, 미래목회포럼(대표 이성희 목사)이 협력하여 지난 2월 17일(목)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코로나 백서발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제1부 예배와 제2부 세미나, 제3부 기도회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제1부 예배는 예자연 김영길 사무총장의 사회로 시작하여 심하보 목사(은평제일교회)의 기도와 오정호 목사(대전 새로남교회)의 설교가 있었다.

오 목사는 설교를 통하여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예배가 살 때 성도가 살고, 성도가 살 때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 때 나라가 산다고 했다. 그러면서 악인들은 예배를 폐지하거나 박탈하려 한다고 했다.

이어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인사(일체의 인사말은 없음)와 조해숙 반동사(북을섬 룹가회 대표)의 축사가 있었고, 미래목회포럼 대표 이상대 목사의 격려사가 있었다. 이 목사는 예자연이 한국교회를 지키는데 합쓴 것을 격려하고, 백서를 만드는 것이 새로운 이정표가 되리라고 격려했다.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이억주 목사는 격려사를 통하여, "성경 말씀처럼,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배성이 탄식한다고 했는데, 코비드19로 인하여 1만 개 가까운 교회가 사라진 것은, 수백 명의 선교사 목숨을 바꾼 것과 같은 것이라고 전제하고, 지난 2년간 한국교회는 억통이었으며, 지난해부터 백서를 준비해 왔고 기록이 없으면 전설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었다"고 했다.

그리고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 예자연을 도와준 각 교회와 개인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대전 새로남교회의 후원금 전달도 있었다. 또 교단의 업무 협약식도 있었다.

그리고 제2부에서는 김동준 목사(이름사랑교회)의 사회로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심민섭 목사(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는 '코비드19, 언론의 과도한 보도로 인한 한국교회 피해'를 분석했는데, 언론들이 한국교회를 마치 사냥감을 정해놓고 사냥꾼 몰이식으로 과도하게 의의적으로 선동적으로 보도한 것이 한국교회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음을 자료를 통하여 설명했다.

그리면서 한국교회에 세 가지를 제언했는데, 첫째는 한국교회가 (위기 상황에서 -수년 주기로 바이러스로 인한 공격이 나타남) 에배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 둘째는 교계가 어려울 때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셋째는 언론과 정부 및 정치권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상원 교수(전 총신대)는 '예배에 대한 신학적 관점에서-예배의 중심은 모이는 예배'를 설명했는데, '주일예배에 관한 성경적 기르침은 명확히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릴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것이 기독론, 교회관, 종말론에 의하여 뒷받침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첨단 도구(인터넷, 유튜브 등)가 사용되는 것은 교제와 선교를 위한 것으로는 활용될 수 있으나, 특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강조하는 기독교의 예배관을 온전하게 표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을 맺었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남궁현우 목사(서울에스라교회)는 '교회의 자유와 국가의 의무-중세시대의 예배와 코로나'를 주제로 강의했는데,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에서, 황제교황주의, 교황황제주의, 분리론, 크리스텐텀(Christendom-국가와 교회의 혼합주의) 그리고 정교분리가 있는데, 정교분리가 종교개혁을 거치고 청교도들이 신앙의 핍박을 피해 도착한 미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강조한 제가 라고 했다.

따라서 '위정자들은 말씀과 성례를 집행하는 일이나 하늘나라 열쇠의 권한을 따맡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이것은 국가의 헌법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리고 총회의 헌법에 의해서 생명처럼 지켜져야 하며, 이를 억제하는 것은 반헌법적, 반인류애적 악행이라고 규정했다.

이후 제부에서는 박경배 목사(대전 송촌장로교회)의 사회로 대전을 앞둔 가운데, '지도자를 위한 기도회'가 진행되었다.

'교회발 절반' 발언, 정세균 전 총리 경찰 조사 시작

예자연,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사유로 고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020년 7월 8일 '최근 감염 사례의 절반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에서 나왔다"고 주장했던 것에 대해, 당시 실무 역할을 담당한 공무원이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는 지난 1월 10일(월) 국무조정실 사무실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로 고발했으며, 김영길 사무총장이 8일 서울서초경찰서에서 1차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예자연은 당시 정 전 총리의 발언에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공개 질의했으며, 피고발인 측은 답변서를 통해 회의 직전인 7월 5일부터 3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집계 결과 총 87명 중 교회발이 43명으로 전체 대비 49.4%라고 또다시 허위 주장했다고 밝혔다.

예자연이 '43명'의 근거를 요청하자, 앞선 답변과는 달리 '지난해 1월 첫 환자 발생 이후 7월 7일까지 신천지를 포함한 종교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이 44%를 차지함에 따라 교회 방역 강화 방안을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한 것 역시 명백한 허위라고 지적했다.

예자연은 "정 전 총리의 발표 이후 대부분의 언론에서 해당 발언을 그대로 보도하고 하루에만 수백 건의 기사를 보도했다"며 "대부분 정 총리의 발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였다"고 했다.

국무조정실의 답변이 허위사실인 이유에 대해, 예자연은 "2020년 7월 5~7일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의하면, 국내 확진자 87명 중 교회 관련은 9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예자연은 "정 전 총리의 발언은 '최근 감염 사례'에 관한 것이며, 1차 답변은 7월 5일부터 3일간의 통계에 의한 것이라 했으나, 2차 답변은 최근이 아닌 6개월 이상의 기간을 근거로 들고 있다. 만일 후자가 정확하다면도, '지금까지의 감염 사례'라고 발언했어야 한다"고 했다. 또 "신천지는 예배 감염이라기보다는 폐쇄적 집단생활로 인한 감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신천지 관련'은 별도로 구분해 집계했다"며 "정 총리의 발언이 전혀 근거가 없음에도, 피고발인은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답변서를 작성함에 있어 두 차례나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고발인에게 발송하여 행사한 것"이라고 했다.

김영길 사무총장은 "그동안 국무조정실에서 '코로나 상황실'이라며 답변이 왔었는데, 실제 조사를 들어가 보니 '코로나 상황실'이 없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실체를 파고들어갈수록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자료로 1년 6개월간 한국교회가 욕대받이 됐다"며 "벌써 시간이 흘러가 버리고 교회들도 이를 잊었지만,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교회가 잘못한 점이 있다면 사과해야지만, 교회를 죽이기 위해 그런 것이라면 바로잡아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3년도 목사고시 공고

2023년도 목사고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서 류 접 수** : ① 일시: 2022. 8. 31(수) 17: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② 장소: 총회본부(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③ 방법: 등기우편

* 목사고시청원서 작성 및 제출 안내: 총회홈페이지(www.aogk.org)→ 자료실→ 서식다운로드→ 교단서식→ 제15호 목사고시청원서(구비서류첨부)→ 2부 작성→ 지방회에 제출 → 지방회임원회 심의→ 1부 지방회 보관, 1부 총회본부에 제출.

* 총회목회대학원 2학년 재학생은 우선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12월 졸업과 동시에 '졸업증명서'를 제출한다.

2. **서 류 심 사** : ① 일시: 2022. 9. 15(목) 오전11시 ② 장소: 총회본부 회의실
3. **오리엔테이션**: ① 일시 : 2022. 9. 29(목) 오전10시 ② 장소: 총회본부
4. **목사고시료** : ① 납부일 : 2022. 8. 31(화)까지 ② 금액 : 50만원
③ 입금계좌 : 국민 061701-04-17686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5. **목사고시** : ① 일시: 2023. 2. 6(월)~7(화) 오전10시 ② 장소: 총회목회대학원 강의실
6. 전도사 경력 계산은 만으로 하되, 계산일은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7. 직장과 목사직은 겸할 수 없으므로 직장을 가진 자는 목사고시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8. 목사고시 응시 자격은 헌법 제37조 및 헌법시행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
9. 서류심사 이후에는 목사고시 서류일체와 고시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ASSEMBLIES OF GOD

총회장 목사 신재영 고시위원장 목사 이석호
총 무 목사 이경진 고시위원회서기 목사 김영준

생명의 말씀

오직 믿음으로 살라

(롬 1:16-17)



김 양 인 목사
· 교단 증경총회장
· 전주은혜와진리교회 담임

성경에는 믿음의 인물이 많이 나오는데, 그들은 저마다 살았던 시대가 다르고 형편과 처지가 다르지만 놀랍게도 동일한 믿음을 보여 줍니다. 욥은 극도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기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욥 23:10)고 했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 시대의 타락상과 노아의 믿음에 관해서 말해 줍니다. 당시 인간들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생각을 하지 않고 모조리 심판해 버리겠다고 하셨을까요? 그런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창 6:8)고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당시 사람들의 타락상에 감염되지 않고 그들과 구별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란 단지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행동을 수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의 실상은 어떠할까요? 한국 기독교는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신자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단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예배생활을 한다고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노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인정받으려면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차원을 넘어서 순종하는 신자들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브람 선생은 말씀하기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약 2:26)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 가운데 가장 온전한 모범을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히 12:2)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예수님께서 믿으신 것과 같이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선민을 위한 하나님으로만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배타적으로 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빠진 모든 사람을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희생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곧 하나님 자신의 희생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탄생을 가리켜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임마누엘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기에 사도 요한은 증거하기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요 1:18)고 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신 것처럼,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는 방식을 본받지 말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원칙을 따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든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행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믿음이 시험을 당할 때가 언제입니까? 은혜 받고 칭찬 들고 축복을 받을 때입니까? 대체로 그런 때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갑니다. 영혼이 잘 될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믿음생활을 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축복은 고사하고 희생만을 요구할 때 우리 믿음은 시험을 당합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시련이 지속될 때, 그리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죄 없이 비난을 받거나 정죄 당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서 자기의 결백을 입증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아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고난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짧로 온전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짧로 온전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당시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활동하던 당시에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말을 들었을 때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영광과 권능으로 오실 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라는 목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니 마음에 꺼림칙하게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골럴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신 21:23)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실은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저주를 받으셨지만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라는 말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자기들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는 복음의 진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동일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롬8)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인정받은 성도들은 "2)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영혼의 구원은 물론 믿음으로 받은 것이지만, 일상생활의 영역에서도 성도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행하고, 교회 문을 나서면 안간힘인 수단 방법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식의 이중적인 태도를 버리고,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된 성도답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회장의 정치적 편향으로 추락한 광복회

우리나라에는 지원스런 광복회(光復會)가 있다. 이 단체는 1963년 설립되어 '일제에 항거하며 조국광복에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 구성된 단체'로, 전국에 17개의 지부와 8,266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야말로 우리 민족의 자존심과 민족의 긍지를 이어오는 유족과 후손들의 모임이다.

그런데 이 단체가 수년 사이에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추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거기에는 광복회 회장이라는 한 사람에 의하여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지독한 편견 단체에다가 진보·반미의 굴절된 모습이 되고 말았다.

이 단체는 정부로부터 연간 22억원(2021년 기준)과 민간으로부터도 거액의 후원을 받아 운영하는 단체이다.

그런데 지난 10일 국가보훈처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회장이라는 사람이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 만들어 진 국회 안에 있는 카페의 수익금을 부당하게 사용하였고, 골재 사업과 관련하여 광복회관을 민간기업에 임의로 사용하게 하는 등의 비위가 확인되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회 카페에서 중간거래처를 통하여 허위 발주, 원가 과다 계상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그것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골재 사업 추진에서 공문이 위·변조되었다고 국가보훈처의 감사에 의해서 밝혀졌다고 한다.

어찌 독립유공자의 자존심을 이런 식으로 추락시키는가? 우리 사회에 '이빠 찬스' '엄마 찬스'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제는 '조상 찬스'까지 사용하는 것인가? 사정 당국은 광복회 회장의 이런 행위에 대하여 철저하게 수사를 통해 시필귀정을 보여야 하며, 청와대의 정부도 일본배제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런데 현 광복회장의 기행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광복회 정관 제10조에 보면 '보회는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다'(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각 국가유공자 등 단체는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공직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있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 회장은 2019년 3월 국가보훈처 산하 단체인 광복회 회장 선거에 당선되면서 정치색을 강하게 띤다. 그는 2019년 10월에는 국가전복을 꾀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찬양하였고, 보수 정당을 비난하는 발언을 한다.

또 그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한국과 무역분쟁 중이던 일본을 싸잡아 비난하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찬양하는 발언을 하였다. 그리고 2020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민족 반역자가 적국한 노래를 국가(國歌)로 정한 나라는 대한민국뿐이고, 민족 반역자를 청산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라고 폄훼하였다.

그런가 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창군한 국군의 육군참모총장들은 제1~2대까지 일제에 빌붙어 독립군을 토벌하던 자'라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였다. 또 같은 달, 보수 정당을 '토착 왜구와 한 몸'이라는 부적한 발도 서슴지 않았다.

2021년 광복절 경축식에서도 예외 없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등 보수 정권을 정통성 없는 친일정권으로, 6·25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을 친일 주구로 매도하였다.

동 정

루터대, 상갈동 지원사업 협약



루터대학교(총장 권득칠)는 지난 2월 18일(금) 상갈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상갈동지역주민센터 주관의 '행복꾸러미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지역 사회보장협의체는 상갈동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상갈동지역 민간협의체이다.

전주대·전주비전대 차종순 이사장



전주대학교·전주비전대학교의 학교법인 신동아학원(이하 재단)은 제11대 이사장에 차종순(74세, 전 호남신학대학교 총장) 이사를 선임했다. 신임 차종순 이사장은 전남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교역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프린스턴신학대학교에서 신학 석사학위, 계명대학교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ROTC기독장교연 박식순 회장



대한민국 ROTC기독장교연합회가 지난 2월 12일(토) 서울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제17회 2월 조찬예배 및 제21대 박식순 회장 취임감사예배를 드렸다. 박식순 신임회장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역대 중앙회장 주관으로 취임예배를 드리게 되어 더욱 감사하다"고 전했다.

기아대책, 홍지민 홍보대사로



국내 최초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회장 유원식)은 지난 2월 17일(목) 기아대책 서울강서구 사옥에서 뮤지컬 배우 홍지민을 기아대책의 새로운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기아대책 홍보대사는 국내외 빈곤 종식을 위한 기아대책의 활동에 동참하며 이웃에 희망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차금법·종교다원주의 옹호 NCCK관련 입장 밝혀야"

이철 감독회장에게 감리회 목회자들 질의, NCCK 서신 관련 성명서 발표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 여러 단체들이 이철 감독회장의 'NCCK 목회서신' 에 대한 처신을 문제 삼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2월 14일 'NCCK에 대한 이철 감독회장의 처신에 대한 성명서' 에서 "NCCK는 기독교 발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동성연애를 옹호하고, 종교다원주의도 옹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리교해로세우기연대(감해연), 감리교거룩성회복을위한행동의회(감거행), 웨슬리안성결운동본부(웨성본)가 함께한 성명서에서는 "NCCK는 진정한 의미의 연합기구가 아니며 오히려 우리 감리교회의 선교와 전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집단"이라며 "감리교회는 그들을 위해 감리교회 성도들이 드린 한금 매년 1억 4천만여 원을 지원해 주며 물주 노릇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리교회는 매년 교세가 감소하는 상황인데, 그 중에 요인 중 하나가 바로 감리교회가 NCCK에서 주축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NCCK의 실체를 알게 된 많은 감리교인들이 눈물을 머금고 감리교회를 등지고 있는 것은 이제오늘 알아 아니다. 이런 사태에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NCCK가 대선을 앞두고 '한국교회에 드리는 목회서신' 을 발표해, 은연중 교회들을 선동해 자신들 성향에 맞는 대선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촉구하는 듯한 제의를 간과할 수 없다"며 "감리교회와 NCCK와의 관계가 정리되지도 않은 상태에, 감리회 수장으로서 서신에 그 이름을 올려도 되는 것인가"라고 개탄했다.

이에 "다시 한 번 천명하건대 이철 감독회장은 NCCK에 대한 견해가 무엇인지 분명한 견해를 밝히라"며 "또한 작금의 행보에 대하여 전국의 감리교회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에 대한 이철 감독회장의 처신에 대한 성명서' 전문.

1. NCCK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1) NCCK는 진정한 의미의 연합기구가 아니며 오히려 우리 감리교회의 선교와 전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집단이다. NCCK는 소속 교단들의 공통된 관심사와 합의된 사업, 그리고 빙향성은 무시한 채 대부분의 권한을 위임받은 총무를 중심으로 한 소수의 내부자들의 생각과 결정에 움직이는 조직이다. 따라서 교회 연합기구도 아니며 감리교회는 그들을 위해 매년 1억 4천여만 원의 감리교회 성도들이 드린 헌금으로 지원해 주며 물주 노릇만 하고 있다.

2) NCCK는 기독교 발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2021년 12월 2일 NCCK는 차금법 제정에 앞장서 온 단체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에 '인권상' 이란 상까지 주며 격려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전에는 "동성애 옹호 단체", "반미단체", "주사성향의 "노동단체" 등에 '인권상' 시상을 했다. 이 뿐에 대해서 합의하였던 NCCK와 관련 없는 NCCK 인권센터에서 한 일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는데이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3) NCCK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동성연애를 옹호한다.

지난 2016년 4월 28일 NCCK는 대표적 동성연애자로 잘 알려진 김조광수 씨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열려고 하다가 반대에 부딪히자 장소를 옮겨 몰래 개최하였다. 또한 차별금지법의 핵심이 동성애자를 포함한 소위 성소수자를 특권층으로 만들자는 것인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NCCK는 차금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왔으며 지금도 기회만 있으면 이를 통과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4) NCCK는 종교간의 대화라는 명목으로이슬람, 불교 등 타 종교를 옹호하며 종교다원주의를옹호한다.

NCCK는 2018년 "이것시람은 가능한가? 그리스도인 이웃에 사는 무슬림"이란 이슬람을 옹호하는 내용으로 채워진 책을 NCCK 이름으로 출판하였다. 또한 2020년 석탄일에 발표한 NCCK 축하 메시지에서 "부처와 예수님이 하신 구원사역이 다르지 않다"는 망언을 하여 한국교회 전체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5) NCCK의 이와 같은 반기독교적 행태로 인해 매년 많은 감리교인들이 감리교회를떠나고 있다.

그 결과 감리교회는 매년 교세가 감소하는 상황인데 이런 교세 감소에 중대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감리교회가 NCCK에서 주축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NCCK의 실체를 알게 된 많은 감리교인들이 눈물을 머금고 감리교회를 등지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런 사태에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2. NCCK의 회원 교단장들이 발표한 '한국교회에 드리는 목회서신'의 의도는 무엇인가?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NCCK의 빙향성과 행보는 그 어느 시점 집단보다 더한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이다. 그결과 지금까지 NCCK와 같은 빙향성을 가진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성경에서 벗어난 가르침으로 감리교회가 쇠퇴하는 데 크게 일조하였다.

이 같은 이유로 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NCCK와 WCC를 탈퇴해야만 한다는 그 필요성과 절박성을 감지한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에 의해 2020년 10월에 열린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에서 탈퇴 건의 안이 상정되었다. 이제 감리교회는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할 때가 온 것이다.

또 하나, 작금의 우리 대한민국은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도 혼돈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NCCK가 '한국교회에 드리는 목회서신' 을 발표한 의도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NCCK는 '하나님', '정의', '평화' 등을 외쳐왔지만 오히려 진리를 왜곡하고 세속화에 앞장서 왔다.

이러한 빙향성을 지향해온 NCCK는 "한국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통해 은연중에 교회들을 선동하여 자신들의 성향에 맞는 대선후보를투표하도록 촉구하는 듯한 제의를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감리교회와 NCCK와의 관계가 정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수장으로서 그 이름을 올려도 되는 것인지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다시 한번 천명하건대 이철 감독회장은 NCCK에 대한 견해가 무엇인지 분명한 견해를 밝혀 줄 것과 작금의 행보에 대하여 전국의 감리교회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2년 2월 14일

감리교바로세우기연대
웨슬리안성결운동본부
감리교거룩성회복을위한합의회

나라와 민족, 지도자 위해 뜨겁게 기도

코리아기독국민연합

코리아기독국민연합(대표회장 장석구 장로) 2022년 신년하례회가 지난 2월 7일(월) 오후 2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대강당에서 드려져,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지도자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이날 하례회는 이효상 원장(한국교회연구원)의 시회로 김광이 장로(기감원로장로 전국회장)의 기도와 채한석 장로(코리아기독국민연합 회계)의 성경봉독(시 144:15), 윤보환 감독(인천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의 복된 나라 대한민국 이란 제하의 설교 순서로 진행됐다.

윤보환 감독은 "기도와 말씀의 실천이 계승되는 일에 더욱 힘써길 바란다. 이 민족에 기독교 정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라를 위해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하는 지도자가 중요하다. 새마을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것은 기독교 때문이다. 대통령은 교회를 두려워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구를 지지하자는 말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기도하는 여러분 때문에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교회에 힘을 주는 대통령을 세워야 한다"고 설파했다.

이어 노인우 장로(코리아기독국민연합 공동회장)와 김경웅 장로(한국병신도단체협의회 대표회장), 강무영 장로(행신도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가 스나라와 민족 스한국 지도자 스청년과 다음세대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다.

또한 장석구 대표회장(코리아기독국민연합)이 내빈소개 및 인사를 한뒤, 이완우 사무총장(코리아기독국민연합)의 광고, 김진호 감독회장(전 감리교감독회장)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한편 코리아기독국민연합은 2010년 감리교 감독, 목회자 등 400명이 모여서 선교, 국민의식 개혁, 복음통일,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로 출범했다.

현재 4만2천1백5십여 명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논평

"공유와 타협의 정신과 책임지는 도덕성의 정치 요청된다"

2022년 21대 대선 30일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과반수가 정권교체를 원하고 있다. 57%가 "야당으로 정권 교체," 33.6%가 "여당이 정권 재창출" 지지하고 있다[조선일보 · TV조선 여론조사, 2022.02.06]. 3 · 9 대선은 자유민주주의와 유사 - 전체주의의 싸움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윤석열, 안철수 후보간 단일화 반수가 결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아직 1위 윤석열 후보와 2위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합하면 매번 50% 이상 나온다.

반면 다자 구도로 대선을 치르면 정권교체를 장담하기 어렵다. 민심은 "단일화가 필수"라고 하는데, 안 후보는 완주를 외치고 있다.

설 직전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윤 후보가 이 후보를 5~10% 앞선 조사가 4건, 두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해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조사가 6건이었다. 국민의 힘 내부엔 자기네 한만으로도 집권 가능하다는 자강파(自强派)가 있다.

이들은 지난 2월 1-3일 윤석열 46% 이재명 38% 안철수 8%(뉴시스 보도), 2월 4-5일 윤석열 35.0% 이재명 31.0% 안철수 12.1%(조선일보 보도)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내세운다.

1. 선진국 답게 정치문도 선진국 형태로 발전해나가야 한다.

차기 정부는 1948년에 자유민주공화국으로 새로 세운 대한민국 산업화를 성공시킨 대한민국, 그 후 민주화까지 이룩한 대한민국, 그래서 마침내 세계 10대 교역국이 된 선진 자유 대한민국에 걸맞는 국가 지도자가 맡아야 한다.

이에 걸맞는 정치풍토란 보수주의, 자유주의, 합리적 진보의 모든 스펙트럼(빛깔)을 관통하는 광의의 반(反)전체주의 · 반(反)부패 연합이다. 공정하고 분명적인 일류 국가를 지향하는 정치인들은 다음 정권을 '내 정파만의 정권' 이 아니라, 모두가 참여하는 '공동 정권' 으로 설정해야 한다. 제왕적 권력 독점을 포기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권 교체를 이룰 대통단결이 가능하다. 다음 정권을 '끼리끼리' 전리품으로 독식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 연대는 윤석열 · 안철수 연대를 뜯할 수도 있다.

이재명 안철수 연대도 언급되기는 하나 정권교체를 주장해온 안 후보와 여권 이후보의 연대는 정책적으로 맞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2. 국민들은 한번에 합치하지 않는 친중국, 종북, 반기업, 불공정 정권을 원하지 않는다.

문재인 5년 집권은 국민을 정말 힘들게 하였다. 반대편도 이우르는 정치가 아니라 자기 편끼리 똘똘 뭉친 편 가르기의 정치, 독선과 독점의 정치가 지배하였다.

이로 인한 극심한 분열과 갈등이 지난 5년의 정치였다. 국정은 배타적으로 구성된 소수의 청와대 인사들이 주도하였고, 여당은 수적 우위에 기반한 밀어붙이기식 의회 정치를 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사라졌고 행정부는 자율성을 잃어버렸고 국민은 두 쪽으로 갈라졌다. 정책의 무능보다 국민을 힘들고 아프게 만든 건 바로 문재인 정부의 정치였다.

문재인 정권은 지적 · 도덕적으로 파산해버린 자칭 진보 세력 '(수단 방법 안 가리고) 합니다' 라 떠벌리다 희천대로로 만신창이가 돼버렸다. 공적 기치와 책임을 내던지고 패거리 이익만 좇는 파당이 되었다. 사회 통합 실패는 정권의 실패뿐 아니라 극심한 포퓰리즘을 불러들여 민주주의 체제까지 위협하였다. 특히 나쁜 국가 재정과 코로나 방역을 정권 유지 도구로 써먹었다.

지금 국민들의 정권교체 열망이 높게 된 것은 보수 야당이 혁신적 대안 세력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집권 세력의 참담한 실패 덕분이다. 북한 핵과 미사일 발사에 무대책 저지세, 3불 정책으로 요약되는 국가주권 포기 친중국 정책,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설명되는 정책 실패, 그리고 탈원전이나 소득 주도 성장 등 현실을 무시한 이념 지향적 정책 추진의 결과다.

3. 승자 독식의 구시대적 정치를 벗어나는 권력분담의 연합정치로 나가야한다.

정권교체를 위해야 야당후보들은 승자 독식의 태도에서 벗어나 권력분담의 공동정부로 나가야 한다. 공동 정부 모델로 가려면 서로 비슷한 정책 공약은 누가 집권해도 추진할 수 있게 '공통 공약 추진위' 구성이 필요하다. 원격의료, 공유차처럼 이해충돌 탓에 발목 잡힌 정책은 "법은 만들되 발효 시점을 5~10년 이후로 명시하는 '미래 입법' 형태로 돌파하자"는 아이디어는 공동 정부 합의문에 담을 만한 내용이다. '프랑스 마크롱식 '국민 통합 내각' 구성이 필요하다.

공동 정부 합의서와 권력 분단형 통합정부 구성안만 마련되면 '윤석열+안철수 공동 정부' 모델이 가능하지 않을까. 요즘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선심 공약 공세에 '받고 더블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공동 정부 모델은 매표를 위해 쏟아낸 포퓰리즘 공약에서 벗어나는 탈출구가 될 수도 있다.

4. 승자 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와 결별하는 정부 운영이 필요하다.

승자 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와 결별이 필요하다. 현 시스템으로는 후보들은 3월 9일 투표까지는 국민에게 머리를 조아리나 당선 후에는 제왕이 되어버린다.

제왕적 대통령은 공룡처럼 비대한 청와대 친위 조직을 통해 국정을 만기친람하고 집권 여당의 공천과 각 부처 내부 인사까지 개입하는 제왕적 권한을 행사한다.

그러다 국정에 차질이 생기면 아무 권한 없는 총리와 장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떠넘나간다. 지난 5년 동안 청와대가 관할 부처와 전문가들의 견해를 무시하고 전횡한 경제, 부동산, 탈원전, 방역, 북핵, 안보 등 분야의 무수한 실정을 재검토한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의 국정 실패 책임을 총리와 장관이 대신 짊어지는 대리 속죄 관행마저 사라진 총체적 무책임 정부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제임제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권한과 책임이 일체화된 국정 운영이 필요하다. 대통령은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비대한 청와대 조직을 최소 규모로 해체하고 내각을 통한 투명한 국정 운영을 해야 하며, 보좌진의 어깨 뒤에 숨지 말고 국정 운영 결과에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 대통령은 자신이 제왕이 아닌 입기제 정부직 공무원임을 매시간 확인하면서 일해야 한다.

5. 메르켈 총리가 집권 16년 내내 연정을 한 것 같이 독일식 연합정부가 필요 시된다.

메르켈 총리는 집권 16년 내내 연정을 통해 국정을 운영했다. 4번의 연정에서 합의된 정책 296개 중 74%가 실제로 이행했다. 이 중앙 연금 수령 시기를 65세에서 67세로 늦춘 연금 개혁도 포함돼 있다. 영국에서도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10년 보수당과 자유민주당 연정이 구성돼 재정 적자 감축, 연금 개혁을 단행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독일에선 사민당 · 자민당 · 녹색당 3당 연립정부가 출범했다. 메르켈의 16년 집권 후 정권 교체의 산물이다. 3당은 177쪽의 국정 운영 합의서를 만들었다. 기후변화 대응책, 코로나 대책, 디지털 경제 전환 등 굵직한 국가 어젠다가 포함돼 있고, 2030년까지 석탄 발전 중지, 전기차 1500만대 보급 등 구체적 정책이 적시돼 있다.

매년 1000억유로(약 135조원)씩 세금으로 때워주는 연금 적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도 들어있다.

6. 야권 후보들은 한번 합치의 정책합의서에 기초해서 공동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1997년 15대 대선 당시 1위 후보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지율 3%대 김종필과 권력을 나누는 DJP 연합 을 성사시켜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 권력을 독점해 온 대통령만을 겪어온 상황에서 김대중과 김종필이 권력 공유에 합의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신선했다.

민주당이 180석을 장악한 국회에 맞서려면 단일화를 통해 정권 기반을 넓히고 승부 격차를 벌려야 한다는 것이다. 정권 교체 지지 비율은 50%대 중반이다. 최근 여당 표는 결집(結集)이 빨라지는 데 비해 윤 후보는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국민의 10% 이상을 지난의 지지 세력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 안철수 표다. 이런 후보는 '내 정파만의 정권' 아닌 '공동 정권' 으로 설정해야 한다. 지유민주체제와 시장 경제, 탈원전 등 공동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대다수 선거 전문가들은 이런 연대 없이는 정권 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정권 교체를 위한 연대가 성사된다면 국민의힘에 대한 신뢰가 낮은 20 · 30대와 중도층 표심이 전략적으로 끌어올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려면 두 후보의 지지층뿐만 아니라 부동층까지 끌어 모아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기 위해선 단일화 또는 공동정부 구성 등 논의를 빨리 끝내고 연대의 취지에 맞은 비전과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현 정권이 179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만큼 기울어진 국정운영을 균형잡도록 돌리기 위해서는 야권 연합은 여유있는 대선 지지를 얻어 집권해야만 한다.

독일은 연립정부를 출범시킬 때 정책 합의서를 만들어 국정 과제를 수행한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라 독일 · 영국처럼 연정이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1997년 대선 당시 김대중과 김종필 후보가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정부 공동 운영 합의서를 작성했다. 지지율 34%로 1위를 달렸던 김대중 후보는 확실한 승리를 담보하기 위해 지지율 3% 김종필과 손잡고 권력 분담을 약속했다. 그렇게 성사된 DJP 연합은 김대중 대통령-김종필 총리, 지민련 출신 경제 관료로 구성되는 통합 정부 체제로 운영됐다.

7. 공동정부를 위해서는 공유와 타협의 정신과 책임지는 도덕성의 정치 요청된다.

단일화가 의미를 가지려면 그저 선거 전술이 아니라, 분열과 대립을 극복하고 '공유와 타협 의 새로운 정치를 모색하는 대안이 되어야 한다. 정권 교체 열망이 높다고 해도 명분 없는 단일화에는 공감하기 어렵다.

대안 새로운 정치를 위한 연합의 정치라면 더욱이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고려해 볼 법하다. 후보들은 자신의 정략적 이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정치인이 진정한 국가의 백년대계를 여는 지도자다. 우리 국민은 믿고 존경을 보낼 정치인을 갈망해왔다. 자신의 언행을 천금과 같이 여기는 정치인, 거짓이 드러나거나 정책이 실패하면 국민 앞에 책임을 지는 정치 세력이 이미 국민 눈높이다. 이것이 보수 정치의 뉴노멀이 돼 한국 정치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 국민의 눈 앞에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실패에 대하여 책임지는 정치인들이 나와야 한다.

2022년 2월 10일

살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2 전국 여교역자국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총회장 신재영 목사 새김천교회

조직

임원단


예배부장 기장순복음교회 조병희 목사


선교부장 회복교회 김순자 목사


복지부장 진리장성교회 이복순 목사


봉사부장 군산순복음교회 김종애 목사


홍보부장 대전제일순복음교회 안선자 목사


재정부장 성광교회 최성희 목사


행정부장 후계교회 김찬애 목사


기획부장 일산벧엘교회 조영란 목사


행사부장 순복음기쁨과기름교회 이명순 목사


친교부장 순복음동도교회 조은혜 목사

전국지부장


서울동부지방회 지부장 서광재중앙교회 홍현자 목사


서울중앙지방회 지부장 예수향기교회 정에스더 목사


서울강남지방회 지부장 순복음서빛교회 이현욱 목사


경기지방회 지부장 온누리순복음교회 최금자 목사


경기중앙지방회 지부장 행복하순복음교회 김선은 목사


경기남지방회 지부장 사랑기쁨실로나무교회 표현자 목사


경기북지방회 지부장 중심반석교회 서석자 목사


일산지방회 지부장 순복음벧엘교회 심수자 목사


대전지방회 지부장 샬롬교회 김혜시바 목사


송북지방회 지부장 늘꽃이보교회 서랜란 목사


충남지방회 지부장 예수사랑교회 한성숙 목사


청주지방회 지부장 행복하순복음교회 김문자 목사


경남지방회 지부장 세계로교회 정금자 목사


영남동지방회 지부장 순복음문예교회 이은애 목사


부산지방회 지부장 하늘소망교회 김경옥 목사


부산동지방회 지부장 순복음벧엘논교회 황연선 목사


광주지방회 지부장 은혜와믿음교회 김정순 목사


호남지방회 지부장 순복음동산교회 정복례 목사


은진지방회 지부장 은혜와믿음교회 심연숙 선도사


국장 백영자 목사 녹동순복음교회


고문 정부용 목사 대림벧엘교회

자문 한순남 목사 순복음반송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여교역자국

ASSEMBLIES OF GOD

국장 백영자 목사

사단법인 아산시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대표회장 | 본부장 | 실무회장 | 사무총장 | 상임회장



진등용 목사 김수홍 목사 박노섭 목사 정진학 목사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조이철 목사 박귀환 목사 온재천 목사 황기식 목사 김병완 목사 홍석용목사

고 문 정연창 목사, 강상철 목사, 김소윤 목사, 김형태 목사, **이영한 목사, 연용희 목사, 이두영 목사, 임기석 목사, 신상우 목사**

자문위원 이명수(국회의원), 강훈식(국회의원), 오세현(아산시장), 고재권(아산경찰서장), 황재만(아산시의장), 박성기(U1대학교 교수)

대표회장 진등용 목사

본부장 **김수홍 목사** 실무회장 박노섭 목사 사무총장 정진학 목사 총무 차추병 목사

상임회장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박귀환 목사, 온재천 목사, 황기식 목사, 김병완 목사, **홍석용 목사**

공동회장 진등용 목사, 노선웅 목사, 이두영 목사,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도승현 목사, 임은석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정훈화 목사, 박노섭 목사, 황창익 목사, 심우섭 목사, 최문기 목사, 박귀환 목사, 온재천 목사, 황기식 목사, 손 혁 목사, 김병완 목사, **홍석용 목사**

지도위원 박차영 목사,박판용 목사, 최성덕 목사, 김병철 목사, 표의성 목사, 김관호 목사, 김득수 목사, 박봉순 목사, 송화섭 목사, 이재구 목사, 최재희 목사, 박신석 목사, 엄태일 목사, 최상근 목사, 황하성 목사, 최순식 목사, 김완진 목사, **백현기 목사, 김준호 목사, 김성구 목사**

부회장 이광로 목사, 서석웅목사, 장현원 목사, 정병한 목사, 윤돈상 목사, 이덕희 목사, 길성권 목사, 곽일귀 목사, 조계성 목사, 김의중 목사, 유현희 목사, 고영기 목사, 김청환 목사, 엄태일 목사, 이재두 목사, 김주섭 목사, 김현준 목사, 박덕수 목사, 구자범 목사, 안덕근 목사, 안흥규 목사, **고영기**목사, 박성화 목사

사무총장 정진학 목사 총무 차추병 목사 서기 정수희 목사 회계 곽인숙 목사 재무 이은혜 목사 회원 아산시 400교회

상임총무 박성민 목사, 이석주 목사, 이춘호 목사, 임해성 목사, **김종권**목사, 정미숙 목사, 권필희 목사,**안상욱**목사,**안준호** 목사, 홍은식 목사, 김희석 목사, 오세완 목사

후원회 회장 한상문 장로 협동총무 **이요한 목사, 박종성 목사**

후원회 배성한 장로, 김영식 장로, 박동국 장로, 장상근 장로, 오좌근 장로, 김도식 장로, 김수흥 장로, 임도순 장로, 이익상 장로, 황의덕 장로, 신요섭 장로, 이세영 장로, 김현우 장로, 박해서 장로, 한장섭 장로, 이창식 장로, 광웅기 장로, 차영환 장로, 김기운 장로, 박노완 장로, 김현진 장로, 한상문 장로, 정진경 장로, 이희열 장로, 박종탁 장로 (外 각 교회 장로)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혈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천년초의 효능

70인 천년초식품

백년초는 멕시코 산으로 독성이 있습니다.
천년초는 토종 한국산으로 독성이 없습니다.
천년초와 백년초는 완전히 다른 종입니다.

*천년초는 인체에 무해하며 독성을 지니지 않음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발표)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1)폐놀성물질
1 손상된 신체조직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쥐실험)
(*고려대학교 손용석 교수님 암쪽으로 세계특허내)

2)플라보노이드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탁시폴린 :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전북대연구논문)

4)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연구논문)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6)칼슘 : 홍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식이섬유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연구논문)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연구논문)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회분, 지방, 이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이 연구를 통해 발표됨.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입증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종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찧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남.







목포시내산교회

본사 대표 방철성 · 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 · 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산하 지방신학교

2022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요강



(학장 한 명 점 목사)

예하성부산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35번길 14
- T E L : 051)803-3927
- F A X : 051)581-0198
- e-mail : yhsbs3927@hanmail.net



(학장 최 정 식 목사)

예하성광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광주 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372-25
- T E L : 062)952-7004
- F A X : 062)953-5004
- e-mail : sm1004@daum.net



(학장 오 일 선 목사)

예하성충남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1길 14 한길프라자 B동 301호
- T E L : 041)567-3004
- F A X : 041)575-3171
- e-mail : changdeman@hanmail.net



(학장 김 상 용 목사)

예하성청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학교장 장학금, 이사장 장학금, 지방회 장학금, 목회사역자, 사모, 자녀 장학금
- 주 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68
- T E L : 043)274-2265, 273-2211
- F A X : 043)237-2705
- e-mail : ho--gi@hanmail.net

ASSEMBLIES OF GOD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http://www.aogk.org / e-mail:aogk@aogk.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나길 8
TEL:02)2675-5181~3 FAX:02)2677-5181

홈페이지 www.lovehousecare.com ·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홈페이지 www.lovepn.com

노인 장기요양시설 경기도 이천 사랑의집

사랑과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랑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박흥열 목사입니다. 사랑의 집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매우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치매, 중풍, 당뇨, 관절염, 파킨슨병, 노인성질환 및 독거노인, 장·단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정성스럽게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전원적인 농촌에 있는 요양시설입니다. 자연친화적인 환경에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는 내집같은 곳입니다. 깨끗한 시설과 쾌적한 주의 환경…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으며, 풍부한 경력의 요양보호사들이 24시간 상주하여 어르신을 가족처럼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민들의 경제를 생각하여 저렴한 요양비로 모시고 있으니, 저희를 믿고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랑의 집에서 가족처럼 정성을 다해 모실 것을 약속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의 집 원장 박흥열 목사

어르신을 내 가족처럼 내 부모처럼 모시겠습니다











사랑의집 연혁

2009. 07. 10 사랑의집 개원 (9인 시설 공동생활가정)
2011. 07. 27 사랑의집 신축건물 준공
2011. 11. 23 사랑의집 (15인 시설 인가)
2014. 02. 10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봉사단체 설립)
2019. 09. 23 사랑의집 (20인 시설 인가)
2020. 05. 11 사랑의집 (29인 시설 인가)

사랑의집 시설장

(박흥열 목사 수상경력)

2007. 10. 3 이천국회의원 표창
2014. 12. 13 이천시장 표창
2016. 02. 18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019. 09. 28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표창
2020. 12. 18 이천시장 표창



요양보호사 모집

사랑의집 연락처 : 031-643-4041
주 소 : 경기도 이천시 율면 금율로 828번길 198-50
010-2217-4489 010-8732-4489

오성사랑교회(담임 박흥열 목사)

CTS다음세대운동본부 한국사 교재 출간

기독교 신앙의 관점으로 스스로 공부하는 교재 설명회 가져

CTS다음세대운동본부(총재 이철 감독, 류성모 목사, 배광식 목사, 감경철 회장)는 2022년 2월 9일(수) 오전 11시 CTS컨벤션홀(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00, CTS기독교TV 11층)에서 '신앙의 눈으로 보는 한국사' 교재 출판기념 및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제작된 한국사 교재는 대안학교와 선교현지와 홈스쿨을 하는 학생들이 사용하도록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역사책으로 제작됐다.

교재는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의 초중고등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형 학습 교과서로 사용되도록 제작됐다. 총 6권으로 제작된 한국사 교과서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진리를 기초로 세상 교육과 차별되된 기독교 교육 도서이다. 특별히 우리 민족의 모든 역사적 사건 곳에 담김 하나님의 섬세한 뜻과 계획을 드러내도록 저술했다.



감경철 CTS기독교TV 회장



이상규 백석대학교 석좌교수

출판기념회에서는 감경철 회장(CTS기독교TV)의 인사말과 김진홍 목사(은평두레교회)와 강대흥 사무총장(KWMA)의 축사를 듣고 난 뒤, 집필자인 이은숙 박사(TMTC전임간사), 이행구 목사(CTS다음세대지원센터장), 임종수 교사(크리스천글로벌스쿨 교사)와 감수를 맡은 이상규 교수(백석대학교 석좌교수)와 조이훈 교감(밀알두레학교)이 참석하여 출판과정 소감과 교재 사용법을 설명했다.



출판되는 한국사 교재는 고대 국가의 형성에서부터 현대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유구한 한국사를, 학생 스스로가 공부하면서 신앙의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기존의 교재들이 한국사 속의 기독교의 역사를 소개하는데 그쳤다면, 이 교재는 한국사 전체를 기독교의 시각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교재이며 동시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기본)에 응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학본적으로 우수한 교재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교재의 특징으로는 성경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온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인류역사의 주관자라는 진리에 입각하여 학생들이 공부하게 돕는다. 그리고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학생 스스로가 학습을 하며 답을 찾아가도록 돕는다. 마지막으로 학생이 중간 중간에 있는 확인 학습 문제들에서 일정 수준에 이르러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완전 학습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교재 구성은 1권(초기 국가의 형성과 고대 국가의 발전)과 2권(고려), 3권(조선-사회의 성립과 발전)으로 구성되어 있고, 4권(조선-후기 사회의 변화), 5권(개항-일제 강점), 6권(광복이후-세계를 향한 대한민국)으로 제작됐다.

이 교재는 국내의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뿐 아니라 해외 선교 현지의 선교사 자녀를 포함 디아스포라 동포 자녀들에게 한국사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것으로 기대된다.

미래목회포럼, 대선과 기독교 주제로 포럼 개최

김회재 의원 "차별금지법 국민적 공감대 얻지 못했다" 인정

미래목회포럼(대표 이상대 목사)이 오는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국가 현안 및 기독교 쟁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지난 2월 10일(목)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졌다.

미래목회포럼은 이날 포럼에서 한국교회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대선 현안들을 주제로 선정했다. 발제자들은 각각 △차별금지법(김회재) △종교지원 형평성(김진표) △코로나와 백신 정책(홍준표) △선거법(고영삼) 등을 주제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첫 번째 발제는 김회재 민주당 의원이 열었다.

먼저 김회재 의원은 "기독교는 물론 재계에서도 큰 반발을 받고 있는 포괄적차별금지법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 아직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며 비판적 시각이 많다는 점을 인정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역시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상민·박주민·권인숙 의원 등이 차별금지법과 비슷한 평등법을 발의하며, 제정을 적극 주도하기는 했지만, 이는 소수의 의견일 뿐 당내 여론은 '반대'가 확실하다는 것이다.



김회재 의원은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선교에 막대한 폐해를 끼친다는 것 외에도, 동성혼 허용, 반대자 혐오, 역차별 등의 다양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날 토론회 역시 차별금지법의 기준에서는 '혐오'가 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차별금지법이 당 내에서도 다수가 반대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공론과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기독교가 우려하는 것을 제외한 법을 제정하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종교지원의 형평성에 대해 발제한 김진표 의원은 기독교가 근대 한국 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데도 불교 유교 등에 비해 매우 미약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데 동의했다. 불교와 유교가 분화유산의 비중이 큰 탓에 분화재 보존 차원에서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데는 동의하지만, 기독교 등의 근대종교 역시 보존가치가 충분한 분화유산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장치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한국 기독교가 교육과 의료, 사회복지 분야에서 대한민국 근대화의 중심적 역할을 감당해 왔음은 역사학계에서도 확실히 인정하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근대종교문화지원보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교계와 소통하면서 종교 간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세기총 제20대 대선 공명선거 캠페인 적극 참여한다

공명선거 한국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이하 세기총, 대표회장 심령종 목사,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캠페인에 적극 참여할 뜻을 밝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인 디아스포라에게 공명선거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기총은 세계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전용태 장로 외, 이하 세계성시화)가 지난 1월 17일부터 전개하고 있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 참여 및 공명선거 캠페인에 뜻을 같이하고 양 단체가 함께 공명선거를 위한 캠페인을 함께 전개하기로 했다.

양 단체는 지난 2월 9일 세기총 회의실에서 공명선거 캠페인과 관련, 모임을 갖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 SNS를 통한 투표참여 및 공명선거 캠페인을 함께 벌이기로 했다.

이날 세기총 대표회장 심령종 목사는 "유권자의 귀중한 한 표만이 우리의 잘못된 정치행태를 확실히 바꿀 수 있다"면서 "거짓이 판치는 선거판을 바꿔 무엇보다 공명정대한 선거를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뽑힐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캠페인에 대해 설명한 세계성시화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해외 한인교회들이우르는 세기총이 세계성시화운동본부가 전개하고 있는 제20대 대선 투표 참여 공명선거 캠페인에 동참해 주셔서 큰 힘이 되고 감사를 드린다"면서 "대선이 끝난 후에는 탐락에 관계없이 결과에 승복하며 국민화합을 위한 파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히고 "특히 세기총이 중심이 되어 해외 기독교 유권자들이 아닌 대선 투표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간안내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지금까지 목회자, 목회자 후보생, 사모, 교사, 직분자, 평신도 등을 대상으로 각각의 본분와 직무에 맞는 신앙생활 지침을 현장감 있으면서도 깊이 있게 전달해 온 저자는 이번 책에서는 '예배자'라는 보다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본질에서 벗어난 형식적 예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생동감 있는 참된 예배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다. 올바른 예배의 정의와 예배 갱신의 절박한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이 책은 근래 감염병 팬데믹으로 느슨해진 신앙생활로 고민하고 있는 한국 교회와 신자들에게 '예배회복'에 관한 한어느 저작물보다도 호소력 짙고 설득력 있는 내용을 설파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저자 : 김남준 | 출판사 : 생명의말씀사
발행일 : 2022-02-18 | (128*188)mm 256p | 판매가 : 14,000원



한 번에 한 사람

이 책은 숫자에 집착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혁신적인 사람법, '한 번에 한 사람'을 소개한다. 누군가가 그분 앞에 서면 서면 그분의 시간이 멈추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세상을 변화시켜셨고, 지금도 변화시켜 나가신다. '한 번에 한 사람'은 '사람하는 삶'을 포기해 세상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린 이 시대 교회와 신앙인을 위한 메시지다. 카일 아이들번은 그분의 제자인 우리가 소중한 인생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 생생하게 녹였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하고 늘 도전받지만 부담감에만 눌려 있고 삶은 그대로인가? 선한 영향력을 내뿜으며 살고 싶지만 길을 모르는가? 사람이 싫고 대인관계가 어려운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은가? 한 사람에게 온 신경을 집중하셨던 예수님의 습관들을 배우고 익히라.

저자/역자 : 카일 아이들먼/정성묵 | 출판사 : 도서출판 두란노
발행일 : 2022-02-16 | (135*202)mm 312p | 판매가 : 17,000원



젠틀 위스퍼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몸부림과 좌충우돌 일상에서 깨닫는 주님의 음성을 소개하고 위트 있는 글과 그림으로 풀어내는 최세미 작가의 네 번째 그림묵상집. 〈젠틀 위스퍼〉라는 이번 책의 제목은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담아온 그의 인생과 그림 계정 명칭이면서 작가 자신의 정체성이자 그가 평생에 추구하는 바람이기도 하다. 사람하는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 애쓰지만 육신의 본성에 지꾸만 무너져 울고 자책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그분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다정하게 격려의 음성을 들려주신다. 일상의 작은 모습도 놓치지 않은 에피소드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하나가 그대로 내 모습이기에 책으로 전달되는 주님의 음성은 곧 나를 향한 말씀이 된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내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저자 : 최세미(젠틀 위스퍼) | 출판사 : 규장
발행일 : 2022-02-14 | (130*185)mm 320p | 판매가 : 18,000원



넥스트 교회 넥스트 비전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 안에는 답answer 해피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시크릿이 숨어 있다. 다음교회의 이야기, 교회의 핵심 가치와 비전은 물론 저자 개인의 이야기들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토스에는 미래를 향해 넘실거리는 사도행전적 웨이브가 느껴진다. 지금까지 시도해 왔던, 그리고 미래를 향해 달려갈 교회의 모습은 더 아름답고 멋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이 책에서 볼 수 있어 감격이 더해진다. '다음'. 그 아름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경이로움을 세상 속에 가장 아름답게 분사함으로 호주 땅에 소망이 넘치는 교회로 우뚝 세워질 것을 엿볼 수 있는 것만으로 감사가 넘친다.

저자 : 김도환 | 출판사 : 좋은땅
발행일 : 2022-01-22 | (148*210)mm 224p | 판매가 : 12,000원



늦겨울 백사마을에 2만6000장 연탄 전달

한교연 송태섭 대표회장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이하 한교연)이 지난 2월 17일(목)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을 찾아 '2022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를 갖고 독거노인 220가구에 2만 6000여 장의 연탄을 전달했다.

공동회장 김형근 목사의 사회로 열린 1부 예배는 공동회장 장시환 목사의 기도와 종무협 회장 김고현 목사의 성경봉독,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의 설교 후 사무총장 최귀수 목사가 광고하고 상임회장 김학필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날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는 설교를 통해 "우리가 사는 세상 어딘가에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있다. 주님은 이들을 돌는 게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고 하셨다"면서 "내 손을 펴서 다른 이들의 삶 것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복중에 복"이라고 말했다.

이어 2부 전달식은 기획홍보실장 김훈 장로의 사회로 봉사위원장 홍정자 목사가 인사하고 서울연탄은행 대표 하기복 목사가 답사했다.

이어 연탄 2만 6천장을 전달하는 순서를 가졌으며 연탄은행이 한교연에 감사패를 전달하는 순서로 이어졌다.

서울 지역 생명나눔운동 릴레이 후원

장기기증본부, 교회를 중심으로 생명나눔운동 부활 기대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탁 목사/이하 본부)가 새해를 맞아 서울 지역 27개 교회가 생명나눔 사역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후원금 2683백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근 2년간 코로나19의 여파로 교회의 생명나눔예배 등 대면 캠페인이 위축되면서 장기기증 희망등록률이 크게 움츠러든 가운데, 성도들의 따뜻한 마음이 십시일반 모여 얼어붙은 생명나눔운동에 모처럼 온기가 전해졌다. 후원에 참여한 교회는 모두 한 차례 이상 생명나눔예배를 드리며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동참해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건네 바 있다.

'한국교회 사랑의 장기기증 활성화 위원회' 고문을 맡아 장기기증 운동을 주도해온 김명혁 목사는 "교회를 중심으로 생명나눔운동이 다시 부활하기를 바라며 성도 모두가 한마음으로 함께하게 됐다."라며 후원금을 전달했다. 용덕순 목사(신길동교회) 역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교회의 재정이 15%나 줄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장기부전 환자들을 돕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뜻을 함께했다. 또한, 거룩한씨성동교회(윤영 목사)를 섬기는 집사 A씨는 본부가 혈액투석 환자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운영하는 '제주 리퍼의 집'에 한달 120만 원을 약정으로 후원하기도 했다.

본부 박진탁 목사는 "생명나눔운동을 향한 한국 교회의 사랑과 성원에 감사드린다."라며 "장기이식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장기부전 환자들에게 성도들이 흘려보낸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망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후원금은 장기기증 홍보활동과 제주 리퍼의 집을 이용하는 만성 신부전 환자들에게 끼니를 제공하는 '사랑의 밥상' 후원에 사용될 계획이다.



정약용 고향 남양주에 사무소 개소

다산문화예술진흥원 이효상 목사, 문화예술의 보존의 중요성 전파

다산문화예술진흥원(이사장 이점복, 원장 이효상)이 서울 대학로 사무소에 이어 다산선생의 고향인 남양주시 다산동에 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지난 2월 14일(월) 오전 열린 개소식은 주광덕 상임고문과 최식 대표회장(다산기독교연합회), 안영미 센터장(서부희망케어)의 축사로 시작되어, 엄정섭 교수(고려대)와 김영희 (전 남양주시장), 손녕녁 이사장(따뜻근로자복지재단)이 격려사를 전했다. 조은령 단장(다산오케스트라)의 축가, 선물 전달, 이점복 이사장과 박정작 후원회장의 감사 인사가 있었고, 기념 케이크를 자르며 행사를 마쳤다.

다산문화예술진흥원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정신을 계승하고 하부과 사상을 우리 시대에 창조적으로 되살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창립됐다. 우리나라 근대사의 출발점인 다산정신을 계승하며 근현대의 문화예술을 통해 사회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진흥원은 이번 남양주 사무소를 개원하며 포럼과 행사들을 통해 문화·예술·관광·체육·복지·환경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경기도 문화의 새 길을 열어가는 산실이자 싱크탱크(think tank)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고 있다.

진흥원은 "2005년 한국예술문화원에서 다산근대문화진흥원으로, 다시 다산문화예술진흥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다산선생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더욱 매진해 왔다"며 "다산정신의 세계화와 한류화를 도모하며 문화를 한층 업그레이드하여 한류문화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도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남양주 사무소 개원에는 상임고문에 주광덕 전 의원을 비롯해 김영희 전 시장, 신선호 회장, 이한수 회장, 김홍철 회장, 한병희 전 국립국악원장과 고문에 박순직 구리장애인 협회장, 손조희 전 남양주예총지회장등이 이름을 올렸다.

제20대 대선 공식선거운동 한국교회에 드리는 호소문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민주주의 발전 위해 투표에 적극 참여 촉구

지난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 때부터 교회의 선거법 준수 및 투표참여운동을 전개해 온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오는 3월 9일 치르지는 대통령선거가 공명정대한 정책 선거가 되고, 한국 기독교 유권자가 적극 투표에 참여할 것을 당부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호소문 내용.

한국의 기독교 유권자는 65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유권자가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이자 신성한 국민주권인 투표에 참여하고, 6만여 교회는 공명선거에 동참한다면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혈연, 지연, 금품향응 등 불법 타락 선거는 사라지고 깨끗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지도자를 선출하게 될 것입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을 보면 1952년 2대 88.1%, 1956년 3대 94.4%, 1963년 5대 85%, 1967년 6대 83.6%, 1971년 7대 79.8%, 1987년 13대 89.2%, 1992 14대 81.9%, 1997년 15대 80.7%, 2002년 16대 70.8%, 17대 대통령선거는 63%였으나 제18대 대통령선거는 75. 5%로 투표율이 상승했으며,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그보다 높은 77.2%였습니다. 그만큼 유권자들이 투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는 민주주의 틀 못지않게 하는 씨앗이며 투표율은 민주발전의 척도입니다. 선거권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유권자가 선거를 외면하고, 투표를 하지 않으면 민주주의 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을 위한 훌륭한 자질을 갖춘 지도자를 선출할 수 없습니다.

월드비전-한국암웨이 미래재단, MOU

"아동들 끼니 거르는 일 없이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조명한)은 지난 2월 10일(목) 둘째 시각지대에 놓인 결식 우려 아동들을 위해 한국암웨이 미래재단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한국암웨이 미래재단은 이번 파트너십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1월 26일 결식 우려 아동들을 위한 후원금 1억 5천만 원 및 1천만 원 상당의 한국암웨이 대일리 비타민 300통을 월드비전에 전달했다.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월드비전의 결식아동지원 프로그램인 '아침머꼬와 '주짤에 뭐먹니' 를 비롯해 아동들을 대상으로 '건강지킴이'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건강지킴이' 사업은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체성분 측정, NQ(아린이 영양지수) 진단, 영양교육, 운동교육, 마음지킴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양사는 아이들에게 끼니를 제공하고 체성분 측정 등을 통해 영양 상태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한국암웨이 미래재단 방주성 이사장은 "지난 30년간 한국암웨이만의 전문적인 노하우와 역량에 집중해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월드비전과의 협업을 통해 아이들이 균형 잡힌 영양 습관을 형성함으로써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기꺼워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온 가족이 주의 종이 되어

눈이 풍성하게 내리는 명절 전날 밤
이젠에도 풍성히 내려주는 축복의 명절이죠.
소녀와 같은 마음으로 아름다운 설경을
한아름 사진에 담았다.
한 폭의 아름다운 설경의 운치는
멋진 장면이지 않을 수 없다.
흩뿌 들어키며 훨훨 날고 싶었다.
한 폭의 아름다운 멋진 작품들을 한눈에 담아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기었다.
이번 명절에는
큰 아들 목사, 작은 아들 전도사, 우리 목사 내외
모두 목사가정들이 주일까지 주의 일 감당하고
월요일 이젠에 모여 명절 가정예배를 드리었다.
전도사가 사회보고, 큰 아들 목사가 설교하고,
작년까지 설교했던 아버지가 축도로 물러나고,
우리 시모들도 말씀낭독, 기도, 시낭독으로
모두 참여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었다.
둥글게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사역한 이야기들 들으며
"건강하세요" 새해를 받고 용돈을 받았다.
다음에는 풍성하게 새뱃돈을 주어야지.

새해한 아이들에게 남편 목사님은
두 손 없어 축도하며 마음껏 축복을 빌어 주었다.
그간 30년 이상 혹독한 훈련 후
죽으면 죽으리라 심자가만 바라보고 걸어왔던
발자취의 뒤안길을 더듬어 보았다.
20년 동안 남편의 투병으로 시경을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하셨다.
남편은 그런 가운데
결혼한 지 20년 만에 투병을 마치고
30년 만에 Ph.D. 조직신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이제는 강의를 하며 목회사역을 감당한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저를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그저 부족한 종은 감사 할 뿐이다.

막을 것이 없어서
한참 자라는 큰 아이 무릎이 툭 튀어 나온 채로
아버지의 시중을 들며 동생을 돌보아 왔다.

막내는 모든 학비를 스스로 해결하고
아름게 자란 아이들이 다 목회자가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금은 큰 아들은 독일에 몇 년 다녀와서
웨스트민스터대학교 Th.M 신학석사 졸업반으로
5째를 되는 건강한교회 전임 부사역자로
사역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작은 아들은 장신대 졸업반으로
청년반 2,000여명 나오는 교회 준전임 전도사로
청년부를 맡았다.
모두 감당되는 시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는 우리 가족 모두 쓰임받게 되어
감사찬양 돌리리!
이 부족한 종도 그간 공부하게 하시어
신학전공은 계속하였고
학위만 5개째 계속 공부하게 하시었다.
작금에 부르시어
마스크 전도사역에 전적으로 사명주시고
방송사역까지 하게 하시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이다.
그 믿음의 산물이리라.
얼마로 언어진 결실이리라.
가정을 잘 가꾸어서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 믿음의 가정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하리.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어라!

마스크 가족세트 전도본부장 이수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5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에서는 교단산하 개교회 및 도시, 농·어촌, 산간벽지, 교회들을 대상으로 자비량부흥성회를 개최하고 있사오니 부흥과 성장을 위해 부흥회를 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망설이고 계시는 교회는 부흥사회로 연락주시면 부흥사회에서 완전 자비량으로 부흥회를 인도해 드립니다.

2022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임·회원 명단



A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 문의 | 회 장 김기진 목사 HP : 010-4112-9313
상임총무 오세준 목사 HP : 010-5041-3411

---

www.dkfh.kr

산청한방가족호텔이 지리산을 품다!

For your Healthy Life

우리나라의 영산인 지리산 자락의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주행사장인 동의보감촌 내에 위치한 고품격 가족호텔입니다. 자희 호텔에서는 산, 숲, 계곡 그리고 세계전통의약엑스포 테마가 있어 더욱 즐거운 가족호텔.

전통한방의 체험과 천혜의 자연이 살아 숨쉬는 산청의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과 약선 음식을 통해 참된 휴식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객의 몸과 마음의 Healing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 이상의 힘을 모아 한분 한분의 고객만족을 위하여 진심어린 마음으로 고객님을 모시겠습니다.







필봉동/왕산동(스탠다드A,B/온돌, 단체룸)



허준동(원룸/투룸)

예약문의 055)972-7000

52229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동의보감로 479번길 43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이런 늙음이면…



우리가 늙어 가면 서서히
정든 것들과 이별을 한다.
잔치 집 같은 한세월이 가고
시끌벅적하여 늘 그럴 것 같던 집이
어느새 적막이 감돌아
외로움이 와락 안겨든다.

어찌할꼬…
어찌할꼬…
외로움과 쇠약해진 몸을 한탄하며
소망 없는 말만을 읊조리는 늙음은 서글프다.

늙어 늙어…
사랑하는 이들 하나… 둘…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보낸다면 얼마나 좋을꼬…

매일 매일을 감사하며
살아온 시간… 어쩜 그것이
가장 귀한 노후대책이 아닐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찾는 이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라도 그 입에선
감사의 제사를 드리리라…

주님 뵈올 날 가까움을 기대하며
늙어 죽어 가는 그 순간에도 감사하는 입술이
되리라.
사랑하는 이들에게 고통 주는 늙음이 아니라
늙어가는 그 모습조차 닮고 싶어하는 늙음이고
싶어라.

부모님 쇠약한 모습으로 늙어가는 모습을 뵈니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다. 모든일에 감사하는 입술 되어
늙어 초라해질 때라도 감사로 영광 돌리는 삶이고 싶다.

한기총 '포괄적 차별금지법' 관련 이재명 후보 규탄 성명

"그동안 유보 입장을 보이다 서슴없이 말 바꾸기 했다" 비판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임시대표회장 김현성, 이하 한기총)가 지난 2월 14일(월) '포괄적 차별금지법'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말 바꾸기, 국민과 기독교를 우롱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를 규탄한다"고 했다.

한기총은 이번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표현의 자유 박탈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1천만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 밝혔다.

한기총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대통령 선거 국면을 틈타 1200만 기독교인과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하게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두고 늑장의 표만을 생각하고 국민과 기독교인을 우롱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후보의 진정성 없는 말 바꾸기 행태를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반성경적 악법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동성애와 동성혼을 옹호하고 나아가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10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기총이 지목한 말 바꾸기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 두 사람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인 지난 2017년 2월 한기총과의 면담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같은 해 4월 대통령후보 TV 토론에서도 동성혼 합법화에 반대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 이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큰 변화가 없음에도 그 태도를 바꾸어 2020년 10월에는 청와대 집회회의에서 '이젠 차별금지법에 대해 김도할 때'라고 말한 데 이어 이번에는 임기 내에 제정하겠다며 말 바꾸기를 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 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독일은 우월의 후진국으로 출발한 나라다.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였다. 인적 자원을 기반으로 성장, 발전한 나라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많다.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에 주목하는 이유다. 그런데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안보가 튼튼해야만 가능한 이야기다. 자국의 자원만으로는 경제 성장이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1991년 12월 31일 남북은 '핵무기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配備)금지/평화적 목적의 핵에너지 사용/핵처리 시설, 우라늄 농축 시설 보유 금지' 등에 합의를 했다. 하지만 30년이 흘러 북한은 핵보유국이 됐고 남한은 핵무기 없는 나라가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시실상 한반도 비핵화는 실패했다'고 말한다. 핵을 가진 북한, 핵이 없는 남한. 그런데도 정부는 종전선언에 매달렸다.

이에 대해서 유성옥 전(前)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허구"라고 말한다. 정부는 종전선언이 미북 평화협정을 위한 입구라고 말하지만, 미북 평화협정의 종착역은 어디인가? 주한미군 철수와 미북관계의 정상화다. (유성옥) 그렇게 되면 북한은 인도, 파키스탄 방식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얻게 되고 한반도 통일도 북한이 꿈꾸는 월맹식 공산화 통일로 이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다수 의견이다.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이유다.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한 핵폭탄 리틀보이와 팻맨은 그 위력이 각각 15kt, 21kt 이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의 위력은 이의 수십 배에 달한다. 적화통일 야욕을 목표로 하는 북한에 대해서 안보 강화를 말하는 야당 후보에게 여당에서는 '전쟁하자는 것이냐? 전쟁광이냐?' 고 몰아 부치는 것은 안보 포기다. 나라를 잃고 나면 자유도, 경제도, 재산도, 생명도 아무 소용없다. 결국 안보와 경제는 함께 가는 길이다. 이걸 말하지 않는다면 나라를 지킬 의지가 없는 것이다. 대선 후보들의 안보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여당 대선 후보는 '3불 정책(주가지드배치/불가/미국 MD체제불참/한미일 군사동맹불원)은 안보주권 포기인데도 현 정부의 3불 정책은 적정하다고 했다. 3불 정책을 그대로 유지 하겠다는 말이다. 그러나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한국선수에 대한 편파 판정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끓어오르자 한국 영해를 침범하는 중국어선은 폭파하겠다고 한다. 그때그때 하는 말이 다르다. 안보와 경제는 함께 가는 길이다. 가짓 평화는 진정한 평화를 주지 못한다. "그들이 뭘 내 배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렘 8:11)

신천지 포교활동 경계해야

최근 신천지교(신천지예수교회증거장막성전-교주: 이만희, 이하 신천지)의 전방위적인 포교활동이 나타나고 있다. 2월 8일 신문에는 언론의 중심이라는 조선일보 30면에 올 칼라로 신천지의 온라인 세미나를 광고하는 현국비밀 계시록 증거 가 실려 있다. 강의는 교주 이만희가 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또 각 교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신천지를 홍보하고 내용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그내용을 보면 황당한 것들이 눈에 띈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에 등록하면 목사님들과 그성도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고 미혹한다. 그런가 하면 '신천지 천자간에 신천지 외에는 구원받을 곳은 없다'는 엉뚱한 주장을 한다.

이미 신천지는 반사회적, 반종교적이라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다. 그래서인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신천지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신천지는 드러내 놓고 이런 대대적인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가? 신천지 문제 전문가들에 의하면, 코로나 이후에 신도의 감소와 함께 내부 위기감이 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보고 있다. 아무리 신천지가 전방위적으로 언론에 홍보하고, 교회들에 무차별적으로 지신들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황당한 주장을 하여도, 신천지에 빠질 사람들은 이제 많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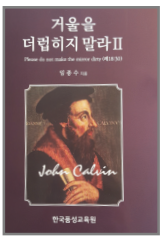
신천지의 문제점은 이미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졌는데, 세력을 확장하려고 이곳저 기를 쓴다고 하여도 이단·사이비 종교의 속성을 바꾸지 않는 한, 국민들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단·사이비 종교를 돌아내는 방법은 국민들이 그런 종교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를 하고, 가족들은 이런 종교를 직·간접적으로 돕는 후원을 끊고, 정통 언론들이 바른 보도에 함쓴다면, 이런 집단들은 우리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한
●연 락 처 : 편집국 ▸(02)2677-9935~6, 구독문의▸(02)2677-9937
광고국 ▸(02)2675-5183 FAX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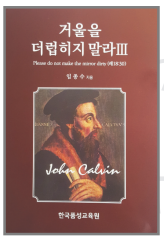
믿음은 구원으로 인도하고 품성은 행복과 성공으로 인도한다



제1권 품성과 비슷한 덕목인 성격, 덕성, 인격, 개성을 바울은 어떻게 개발하였는가? 이조 500년 유교와 고려 500년 불교가 만들어 낸 윤리 도덕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윤리부문 7가지와 자기 계발의 부문에 필요한 10가지를 논하였다.



제2권 대인관계 부문 10가지와 신사적인 성도가 되기 위한 품성 4가지와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품성과 더 좋은 것과 가장 좋은 품성이 무엇인가를 논하였다.



제3권 부정적인 품성 6가지와 영적전쟁의 품성 10가지와 신자가 불리쳐야 할 세력들 즉 점과 굿, 자살, 인종차별과 이단척결을 논하였고, 올바른 생활을 위한 실천분야 5가지를 논하였다. 만약 이 책을 매일 한 과씩 훈련한다면 훌륭한 신자가 될 것이다.
곧 새 언약과 품성과 자유의 대 헌장 두 권이 출판 될 것이다.

품성은 성공과 행복의 열쇠이다. 품성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이다.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는 영적인 면만 강조하였고 육체를 가진 인간의 삶에 대해서는 등한시하여 삶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야 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남의 밭에 고추를 따가는 생활이 그 대표적인 이야기이다. 그래서 저자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영적훈련을 해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품성에 관한 책자를 7권 출판하였다. 최근에 출판된 '거울을 더럽히지 말라' 1,2,3권을 소개한다.

강의 안내
각 교회에서 시행되는 각종 중직자 세미나
각 지역에 거주하는 목회자들의 소 구름

책 구입처
cslim4305@gmail.com 임종수 원장
재무담당 이미란 이사 010-8618-9982
계좌번호 농협 351-0771-1742-13
한국 품성교육원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2학년도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③ 전형료 :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2학년도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 훈**

- 말씀충만, 성령충만.
- 목양일념.
-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 과	과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Master of Ministry)	3학차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승인 허락을 받은 자

2. 전형 방법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① 원서 교 부 : 수시
② 원서교부처 :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③ 원서 접 수 : 수시
④ 합격자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 개별통보

4. 전형료

① 전형료 : 30,000원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6. 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 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 됨.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홈페이지 www.ucts.org 에서 출력 작성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7.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 02)2678-5181 FAX:02-2632-0691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양평동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 홈페이지 : www.ucts.org,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